

		<b>보 도 자 료</b>		수도권매립지 종료		
		배포일자 2022년 2월 17일(목) 총 3매	환경특별시 인천			
담당부서	수 산 과	담당자	• 수산자원팀장 이경주 ☎ 440-4871 • 담당자 서지영 ☎ 440-4873			
사 진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있음		참고자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없음 <input type="checkbox"/> 있음	
보 도 시 점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인천시, 3개 해역 물고기 아파트 설치해 어획량 늘린다

- 1973년부터 총 1만2,237ha(축구장 1만 7,138개 크기) 조성 -
- 어류 산란장으로 활용될 인공어초 설치...어획량 2~4배 증가 효과 -

인천광역시는 수산자원 조성과 해양생태계 보존을 위해 웅진군 덕적·자월 해역에 30ha(축구장 42개 크기)의 인공어초를 신규로 조성하고자, 시비 18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인공어초는 콘크리트 또는 강재 등으로 만든 인공구조물을 바다 속에 투하해 어류가 서식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물고기 아파트를 말한다.

이 구조물에 해조류가 부착해 번식하면 조류의 흐름을 완만하게 해주어 어류들이 숨어 살거나 산란장으로 이용 된다.

시는 1973년부터 지난해까지 1만 2,237ha 규모의 인공어초를 조성했다. 이는 물고기뿐만 아니라 패류에 맞는 인공어초, 해조류에 맞는 인



공어초 등 해양환경에 맞는 어초를 투입해 황폐화된 바다에 다양한 생물들이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었다.

한국수산자원공단에서 실시한 “인천해역 인공어초 시설 효과조사”에 따르면, 인공어초를 설치한 해역은 설치하지 않은 해역에 비해 꽃게, 조피볼락, 쥐노래미 등의 어획량이 약 2~4배 증가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2022년도 인공어초 설치사업” 추진을 위해 지난 2월 11일 대학교수, 한국수산자원공단 등 어초관련 기관의 전문가로 구성된 ‘인천광역시 어초관리위원회’를 개최해 설치해역, 어초종류 등을 심의·확정했다.

어초가 적지에 설치될 수 있도록 사전 현장조사를 철저히 하고, 설치 이후에도 기능이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폐어구 수거 등 사후관리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오국현 시 수산과장은 “인공어초사업은 어장으로 어족자원이 다양화되고 어획량이 증가되는 등 가시적인 효과를 거두고 있다.”며 “수산자원 조성을 위해 인공어초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사진> 인공어초 설치 사진 등



## <인천어초 설치 위치도>



## < 인공어초 투하 현장사진 >

